

## 불안 및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 논문의 분석

이은옥<sup>(1)</sup> · 이은주<sup>(2)</sup> · 이은희<sup>(3)</sup> · 전경자<sup>(4)</sup> · 김주현<sup>(5)</sup>  
박재순<sup>(6)</sup> · 이병숙<sup>(7)</sup> · 정면숙<sup>(8)</sup>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호학의 발전과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간호 현상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주제들은 개인적으로는 간호사의 관심 영역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간호학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일정 기간 동안에 시행된 간호 연구 주제들을 분석하고, 그 주제들이 다루어진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그 시기의 간호학계의 주 관심사를 알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미래의 간호 연구 방향 설정에 지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 연구 논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국내(강과 이, 1980 ; 김, 1983) 혹은 국내외(홍근표 등, 1983) 잡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특성, 연구 설계 유형, 연구 문제 혹은 개념들의 종류를 분석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특정 개념의 연구유형에

대한 보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현재 간호계가 처한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상 혹은 개념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김수지(1988)는 우리나라 간호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간호 현상에 관련된 유의성(significance)이 높은 영역 또는 개념으로 불안, 통증, 스트레스, 수면, 이행(compliance), 지지(support), 돌봄(caring)을 들고 그 개념들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간호 중재를 요하는 중요한 현상이 될 수 있다(김, 1987 ; 김, 1982). 이 두 변수가 간호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다른 변수들과 관련있는지,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예방법이나 대처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까지도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서술적 연구 또는 문헌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 한라전문대학  
(3) 원주전문대학  
(4)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5) 청주전문대학  
(6) 가톨릭 의대 간호학과  
(7) 고신대의대 간호학과  
(8) 경상의대 간호학과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간호 관련 문헌들 중,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내고, 이 연구들의 설계 유형, 연구 대상자의 특성,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성, 간호 중재의 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간호계에서 연구된 불안과 스트레스 연구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또 앞으로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관한 간호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II. 문헌 고찰

### 1. 간호 연구 논문 분석

간호 연구 논문들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Brown, Tanner 및 Paddrick (1984)은 미국에서 발행된 4개의 간호 관련 잡지에서, 1952-1953년, 1960년, 1970년, 그리고 1980년에 실린 137편의 연구 논문에 대해, 게재된 논문의 편수, 저자의 전공, 연구의 내용(간호 교육, 간호사의 특성, 행정, 그리고 임상 실제), 그리고 연구 설계의 종류 등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분석 결과, 연구 논문의 편수는 증가하고 있었으며, 간호사가 연구한 논문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임상적 실제에 관해 특히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증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연구설계는 서술적 연구보다 설명적 연구가 증가하고, 횡단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며,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보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Hayter(1984)는 미국 간호 잡지에 실린 1978년에서 1982년 사이의 연구 논문 3,792편에 대해, 연구자의 지역 분포, 저자가 관련된 기관, 게재된 잡지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사에 의해 선택된 논문은 전체의 76.7%였으며, 석사학위 이상의 저자가 2/3 이상이었다.

한편, Loomis(1985)는 1972년에서 1982년 까지 6년 동안의 미국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과 제목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319편의 논문 내용을 임상적 간호 연구(78.4%), 간호에서의 사회적 문제(221.6%)를 다루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Jacobsen과 Meininger(1985)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3종류의 잡지중, 1956, 1961, 1966, 1971, 1976, 1981, 그리고 1983년에 출판된 연구 논문 434편에 대해 주로 연구 설계(실험 설계와 관찰 연구)와 자료 수집 방법(질문지, 표준화 검사, 관찰, 면접, 기록, 기구), 그리고 연구

대상(환자, 건강 관리 제공자, 기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관찰 연구 중에서 횡단적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환자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었고, 질문지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Moody 등(1988)은 1977-1986년에 미국에서 발행된 6개 간호 관련 잡지에 게재된 간호 실무에 관한 720편의 논문들을 연구의 주요 특성,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설계, NANDA에 따라 분류된 일차적인 연구 문제, 연구의 설계와 방법 등 6개의 항목에 대해 52개의 문항을 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 논문들의 2/3가 사정에 초점을 둔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중재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론적인 근거에 관하여서 대상 논문들은 소수(3%)의 논문들만이 분명한 이론적 모형의 개념틀 혹은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47%는 확인 가능한 이론적 관점이 없었다. 대상 논문들을 10가지의 임상 분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성인 건강과 관련된 것이 39%로 가장 많았고, 지역 사회 건강과 관련된 것이 0.4%로 가장 적었다. NANDA의 분류에 의한 일차적인 연구 문제로는 지식 결핍, 대응(부적절한 개인적), 그리고 불안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연구 설계는 횡단적 연구(56.2%), 유사 실험 연구(24.0%), 순수 실험 연구(6.0%), cohort 연구(3.9%) 순으로 많이 이루어 졌으며, 소수 연구로는 사례연구, 경향(trend)연구 등이 있었다. 연구의 목적으로 대상 연구 논문들의 분포를 보았을 때, 요인 명명(30.4%), 인과적 가설 검정(26.99%), 설명적(21.9%), 요인 연관(14.2%) 그리고 도구 개발(6.1%)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대상 논문들의 표본 선정 방법은 편의 표출이 74%로 가장 많았으며, 유의 표출 10%, 무작위 표출 9%, 체계적 표출이 6%였다. 분석 방법은 이원 변량 분석(40.7)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원 변량 분석(35.1%), 일원 변량 분석(14.2%), 질적 분석(7.8%), 메타 분석(0.6%), triangulation(0.6%) 순으로 사용되었다. 분석의 단위는 개인(84.4%), 집단(10.3%), 조직(0.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 논문들 중 46%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신뢰도를 보고하였으며, 타당도를 보고한 경우는 대상 논문들의 43%였다.

우리나라에서의 간호 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을 보면, 우선 강 등(1980)은 1970-1979년의 10년간 대한 간호(142편)와 간호학회지(176편)에 실린 318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잡지별로 게재된 논문 편수, 연구자의 소속, 연도별 연구 내용, 연구 영역, 연구 접근방법,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는 이론 연구(31.4%)보다 실제 연구(68.6%)

가 많았으며, 연구 영역은 간호사 자질(32.1%), 간호 행위(46.2%), 그리고 간호 대상자(21.7%)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졌다. 연구 접근 방법은 문헌(12.3%), 조사(76.9%), 실험(6.9%), 사례연구(4.7%)가 행해졌다.

홍 등(1983)은 1970-1982년의 대한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간호 연구 논문 199편과 1978-1982년의 Nursing Research에 게재된 259편을 분석,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 내용은 연구자의 특성(연구자의 수, 학위, 직책, 전공분야),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내용(문제 진술유무, 유형 및 수, 연구 설계 유형, 가설 유무 및 수, 자료 수집도구의 유형 및 수,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의 종류 및 수, 제언의 유무)이었으며, 특히 각 연구 논문들에서 다루어진 주요 개념들을 요인 분석하여 분류한 결과를 포함하였다. 이 때 나타난 주요 개념들은 건강신념, 성격, 자기개념등의 인지 요인, 감정이입, 신뢰등의 심리 요인, 불안, 긴장, 통증을의 감각요인 그리고 기타 환자 만족, 아동학대 및 가족 등이었다.

김(1983)은 1970-1982년의 대한 간호와 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전수 386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연구분야, 연구 영역, 연구 목적, 접근 방법, 연구 문제, 예비조사 시행 여부, 연구 대상, 표본 추출 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결과의 작성 형식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를 연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보면, 간호 실무 연구(52.8%)가 가장 많았으며, 문제 해결을 시도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실제 연구(applied research)(70.5%)가 이론 연구보다 많았다. 그리고 비실험연구(89.9%)가 실험 연구보다 훨씬 많았으며, 교육과 행정에 관한 간접 간호 문제(26.4%)와 간호사에 대한 연구(9.8%) 보다 직접 간호 문제를 다루는 연구(60.1%)가 더 많이 행해졌다. 특히 이 문제들에서 신체적 문제에 관한 논문은 감소하고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많은 연구에서 대상자는 환자였으며, 비확률 표출법(51.8%)이 사용되었고, 자료수집을 위해 질문법(56.2%)이 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구 논문들에서 특정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일차적 목적으로 두고 있는 예로 구와 이(1990)가 건강 신념 모델과 만성 환자의 환자 역할 행위를 다룬 논문이 있다. 그들은 1979년에서 1989년 사이에 출판된 한국의 간호 관련 문헌들과 석, 박사 학위 논문들 중에서 33편에 대해 연구 대상, 연구 유형, 변수 측정 그리고 자료 분석 방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폐결핵 환자를 다룬 논문들이, 대상자

수는 60-100명이 가장 많았으며, 대상 논문들의 전수가 후향적 조사연구였다.

## 2.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 1) 불안

인간이 출생시 부터 경험하는 불안이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Freud가 목에 음식물이 걸려있는 것과 유사한 부정적 정서와 생리적 각성(physiological arousal)을 묘사하기 위해 angst(anxiety)라는 개념을 정신 과학에 도입한 이후로 보인다(Nietzel과 Berstein, 1981). 일반적으로 불안은 불특정 혹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위협(threat)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여겨지며, 공포(fear)와는 다르게 취급하지만, 이 둘은 지각된 위협과 각성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진다(Mcfarland와 Mcfarlane, 1989).

Johnson(1979)은 불안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Freud, Mowrer, Sullivan, May, Tillich, 그리고 Lazarus와 Averill를 들고 있으며, Gomez(1984)등은 정신분석학적 모형, 인간관계 모형, 행동주의 모형, 실존주의 모형, 그리고 생물학적 모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McFarland와 McFarlane(1989)은 Freud의 정신 분석 모형과 Horney와 Sullivan등의 신 Freud 주의적 모형, Kierkegaard의 실존 주의적 모형, 발달 이론가들의 모형, Spielberger의 모형, Mowrer 등 행동주의자와 학습이론가들의 모형, 그리고 Kendler나 Gray 등의 생물학적 모형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불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간단하게 두가지 유형, 정신분석학적 입장과 학습이론적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McReynolds, 1975 ; Kim, 1978 ; Laarus와 Folkman, 1984).

정신분석학적 입장은 인지적 접근을, 학습이론적 입장은 불안에 대해 조건적 접근법을 취한다. 먼저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Freud(1930)는 불안을 외계의 위협(즉, 예기되고 예지된 상해)을 감지한데 대한 반응으로써 자기 보존 본능의 발현으로 보았다. 신 Freud주의자인 Horney(Hall과 Lindzey, 1974)는 어린이는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세상에서 고립되어 무력하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며, 환경에 있는 광범위한 불리한 요인들이 어린이에게 불안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Sullivan(이소우, 1987)은 대인관계에서의 불수용(disapproval)에 대한 공포가 불안의 중심 요소라고 생각하였으며, 영아와 모

성간의 초기 유대에서 불안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McReynolds(1975)는 이 접근법은 한 사람의 불안을 그의 정신적 사고, 느낌, 그리고 기억에서의 갈등 상태에 대한 자연스런 결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불안에 대한 학습이론적 접근은 Hull과 그의 추종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Lazarus와 Folkman(1984)이 인용한 바에 의하면 Dollard와 Miller(1950)는 불안을 습관을 유발하는 고진적인 조건화된 반응으로 보았다. 또 그들 중 Spence(1940)는 어떤 불안 수준은 그 반응과 아울러 다른 반응들의 획득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고, 불안의 역할을 검토하고 불안 측정에 관심을 기울였다(Brennan, 1982). Nietzel과 Bernstein(1981)은 불안이 한 개인의 내적인 기질 혹은 성격특성이 아니며, 불안도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일어난 특별한 자극상황(specific stimulus setting)에 의한 것으로, 외적(환경적), 내적(인지적) 유발된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의 행동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McReynolds(1975)가 정리한 것처럼, 이 입장은 불안을 어떤 계기(cues)와 정신적으로 손상을 준 사건 사이의 우연한 일적시인 연상 때문에, 중립적인(neutral) 혹은 우발적인 계기(accidental cues)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현상으로 본다. 그는 나아가 이 두 접근법이 불안 발생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 것으로, 인지적 접근법은 불안의 초기 원인에 관심을 가지므로 1차 불안(primary anxiety)에 대해, 조건적 접근은 불안의 전개에 관심을 가지므로 2차 불안(secondary anxiety)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불안의 유형을 Spielberger(1972)는 상태불안과 기질불안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긴장, 걱정을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감정으로, 자율신경계의 활동에 연관되며, 그 정도가 다양하며, 유기체를 침해하는 긴장의 기능으로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상태불안은 내외적 자극이 위협하다고 여겨지거나 위협적이라고 인식되면 유발된다. 후자는 불안경향에서 비교적 안정된 개인적인 차이를 말한다. 즉 광범위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반응하는 성질이나 경향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 기질불안은 한 특정 위협이나 위협적인 환경에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될 때까지 잠재적인 것으로 남아있으면서, 위협적인 환경에서 상태불안을 조정한다.

Kim(1978)이 인용한 Endler와 Okada(1975)는 Spielberger의 불안의 유형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불안의 차원을 세가지, 신체적 위협(physical dan-

ger), 자아 위협(ego-threat), 대인관계와 모호한 상황(interpersonal and ambiguous situation)으로 구분하고 이것들은 불안의 유형과 서로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불안의 양상에 대해 Nietzel과 Bernstein(1981)은 자가 보고(self-report), 생리학적반응, 그리고 운동 혹은 외현적 행위(motor or overt behavioral)의 세가지 반응 체계로 나타내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가지 반응이 서로 상관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반응 불일치(response desynchrony)의 부분적 원인이, 이 반응들에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 뿐아니라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불안 반응의 수준이 적당할(중등도일)때는 주의가 집중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동기를 유발 함으로써 기능적으로 효율적이며, 문제해결을 가능하게한다. 그러나 이 수준을 넘어 실 때는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의 관심이 좁아져서 그 상태로는 기민성이 저하되어 문제해결과 학습이 불가능하고,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도, 1990).

불안에 대한 중재 방법은 약물요법, 정신치료, 행동치료법 등이 있으나 약물요법이나 정신치료는 주로 정신과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행동치료법에는 이완훈련(relaxation training), 체계적 감감법(systematic desensitization), 주장훈련(assertive training)등이 있다(박, 1987). 그러나 정신과 환자가 아닌 소위 불안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자에 대한 간호 중재는 이런 방법들 외에 대상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이, 1984 ; 한, 1983), 지지적 접촉 혹은 정서적 지지 등의 심리적 지지(송, 1987) 혹은 이 방법들을 병용(김, 1985)하여 사용한다.

## 2)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14세기 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Lazarus와 Folkman, 1984)이 개념을 건강과 관련지어 사용한 것은 Cannon이 항상성(homeostasis)의 장애를 스트레스로 생각한 것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30년대에 Selye(1950)는 해로운 자극에 대한 신체의 비특이적 반응을 설명할 때 스트레스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Selye(1950)는 스트레스를 주로 생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것을 적절한 대응반응에 의해 충족되지 않으면, 삶을 위태롭게 하는 비특이적 반응으로 보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을 스트레스원(stre-

ssor)이라 불렀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의학에서 스트레스의 개념 발전에 기여한 Wolff 역시 스트레스를 신체의 반응으로 보았다. 스트레스 개념을 심리학에서 적용한 것은 Grinker와 Spiegel이었으며, 2차 대전 이후 군대에서 전쟁 중 병사들의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연구한 후 더욱 활발해졌다(Lazarus와 Folkman, 1984).

한편 스트레스를 반응이 아니라 반응을 유발하는 요소로 보는 입장도 있다. Cox(오, 1987)는 이 관점에서는 사람에게 어떤 방해나 혼란을 일으키는 자극을 스트레스로 규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반응을 긴장(strain)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은 스트레스 현상을 기계적 성격으로 설명하며, 스트레스가 생기는 과정과 결과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사람의 특성이나 본성을 수동적으로 미루어 버림으로써 스트레스 결과의 설명이나 해석에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어렵게 한다(오가실, 1987).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zarus와 Folkman(1984)은 전자를 반응 정의, 후자를 자극 정의로 구분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계 정의(relational definition)로 나타내었다. 그들은 스트레스란 한 변수라기보다 많은 변수들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rubric이며, 심리학적 스트레스란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자원을 요하거나 능가하며,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하게 하는 그 개인과 환경간의 특별한 상호 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 Holmes와 Rahe(1967)는 긍정적, 부정적 변화에 관계 없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변화나 적응이 요구되는 사건에 초점을 두고 적응이 요구되는 것은 스트레스를 의미하므로 스트레스 생활 사건이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일 뿐 아니라 승진, 결혼, 출산 등의 소망하는 일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Elliott와 Eisendorfer(1982)는 수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급성적이고 시간적으로 한정적인 것, 실직이나 이혼같은 지속적 효과가 있는 것, 성의 문제(sexual difficulties)같은 만성적이면서 간헐적인 것, 그리고 영구적 장애 등의 만성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방법으로는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교육 혹은 정보제공(전, 1985), 지지적 접촉 및 정서적 지지등의 심리적 지지(김, 1988), 이완술(최, 1986) 그리고 이 방법들 중 둘 이상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 3.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계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많은 전문적인 문헌들에서도 불안과 스트레스는 때로 비슷하거나 혹은 중복되는 개념으로 취급되어 왔다. May(1979)는 스트레스와 불안 개념의 차이는 전자가 개인에 미치는 객관적인 힘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주관성(subjectivity)이 중심이라고 주장하였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이 개념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보며, 스트레스 이론의 주관적 요인을 확장시켰다. 그들에 따르면 Psychological Abstracts의 색인에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1944년 이후로, 불안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1950년대 초에 기질로서의 불안 측정 도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불안과 스트레스로서의 불안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출판되어, 2차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쟁을 거치면서 전쟁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958년의 Janis의 저서는 스트레스라는 용어와 스트레스 이론과 연구의 대중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진 후 간호학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Johnson(1979)은 불안에 대한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이론적 그리고 조작적 정의가 의미론적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Garbin(1979)과 Lowery(1987)는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 등을 안고 있음을 각각 지적하였다.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연구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Scott, Oberst 그리고 Dropkin(1980)은 불안을 스트레스 반응 중 정서적 반응의 한 양상으로 보았으며, Lamontagne, Mason 그리고 Hepworth(1985)는 불안을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Uzzetta(1979)와 Maloney(1982)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불안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Stuart와 Saundeen(1983)은 다음과 같이 건강-질병 현상의 모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원의 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위협적이거나 해로운 것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원에 대한 개인의 일차적 평가로 일반적 불안 반응(generalized anxiety reaction)이 나타난다. 불안은 이때 3가지 측면에서 활성화된다. 자율신경계가 흥분하고, 불안이 느껴지며, 이것은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생리학적, 행동적, 사회적 변화에서 분명하게 된다. 그리고 불

안에 대한 대응 방식(ways of coping)이 작용하게 된다. 이 대응기전들은 본질적으로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이며, 신경증적 혹은 정신과적 건강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안 반응은 적응적 반응과 부적응적 반응에 이르는 연속체의 개념으로 해석되며, 이는 예견, 경증 불안, 중등도 불안, 중증 불안, 그리고 공황 반응으로 그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안은 스트레스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거나 stress가 우리말로 불안감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최, 1975). 서, 차, 그리고 조 등(1984)은 불안이 스트레스의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렵고 당황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라고 하여 불안을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 보았으며, 반면 불안은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는 반응(이, 1989)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불안과 스트레스는 모두 내외적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며,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불쾌한 자극이지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불쾌한 사건 뿐만 아니라 소망하던 사건들까지도 포함된다. 스트레스 반응이나 불안반응의 양상은 개인의 지각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반응은 3가지의 출현 방식, 생리학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나 불안의 중재 방법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간호중재가 요구되는 것인지, 불안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로 감소되어야 중재의 효과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Ⅲ.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논문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발표된 논문 전수로 하였다. 그 논문들의 발췌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의 과대학 또는 간호대학, 간호전문대학, 일반전문대학의 학술지, 2) 대한간호, 3) 간호학회지, 4) 중앙의학, 5) 최신의학, 6) 월간간호등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7) 학위논문목록이었다. 이를 한국 간호관계 문헌 총목록에 수록된 논문제목과 비교하여 분석대상 논문을 확인하였다.

1991년 6월부터 8월까지 해당 논문제목을 수집한 결

과 총 463편이었고, 그 중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를 1건으로 간주한 결과 불안개념이 다루어진 논문은 252편, 스트레스개념을 다룬 논문은 204편으로 최종 456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따라서 연구제목에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은 논문은 본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다.

#### 2. 연구대상 논문의 분석

선정된 연구논문은 연도별, 연구설계별, 대상자별, 간호중재별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자 3인이 한 조로 합의함에 따라 분류하였다.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자에게 문의하거나 논문원본을 구하여 확인한 후 분류하였다. 각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수행 시기별 : 5년-10년단위로 분류함.
- 2) 연구설계별 : 비실험연구로 조사연구, 상관성연구, 비교연구, 종설, 도구개발연구로 구분하였고, 실험연구는 순수실험설계와 유사실험설계로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 3) 대상자별 : 정상성인, 성인환자, 임산부, 정상노인, 노인환자, 정상아동, 아동환자, 정신질환자, 보호자, 간호사, 간호학생등으로 분류하였다.
- 4) 간호중재별 :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로는 정보제공, 이완요법, 교육, 라마즈, 지지간호, 접촉, 접촉과 정보제공, 감감법, 주장훈련, 음악요법등으로 분류하였다.
- 5) 관련 개념별 : 상관성 연구에서는 불안이나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주로 제목에서 다른 개념만을 분석하였다.

### Ⅳ.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연구설계의 연도별 현황, 연구설계에 따른 대상자 분포, 상관성연구의 개념별 분포, 실험설계의 간호중재별 분포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 1. 불안과 스트레스 논문의 연구설계별 연도별 현황

불안개념을 사용한 논문은 총 252편으로 연도별 분포를 보면 <표 1-1> 1970년대가 26편, 1981년에서 1985년까지 115편, 1986년에서 1990년까지가 111편이었다. 또한 연구설계의 분포를 보면 조사연구가 87편으로 가

〈표 1-1〉 불안논문의 연구설계별 연도별 현황

연 도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성연구	비교연구	문헌연구	계
1970-1975	1	2	1	0	0	4
1976-1980	1	13	5	3		22
1981-1985	30	39	34	11	1	115
1986-1990	31	33	41	5	1	111
계	63(25.0)	87(34.5)	81(32.1)	19(7.5)	2(0.8)	252(100)

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상관성 연구 81편, 실험연구 63편, 비교연구 19편, 문헌연구 2편의 순이었다.

불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살펴보면 1970-1980에는 전체 26편중 15편을 차지했으나 1981-1985에는 115편 중 39편으로, 1986-1990에는 111편중 33편으로 감소되었다. 상관성 연구에서는 1970-1980 에는 6편이었고, 1976-1980 에는 34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86-1990에도 41편으로 계속 증가됨을 볼 수 있다.

비교연구에서는 1970-1980에는 3편, 1981-1985에는 11편으로 증가하였으나 1986-1990에는 5편으로 다시 감소됨을 볼 수 있다.

불안에 대한 실험연구를 보면 1970-1980 에는 총 26편 중 2편 뿐이었으나 1981-1985에는 30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86-1990에는 31편으로 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 1-2〉 스트레스 논문의 연구설계별 연도별 현황

연 도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성연구	비교연구	문헌고찰	도구개발	사례연구	계
1970-1975	0	1	0	0	0	1	0	2
1976-1980	0	3	1	3	0	0	0	7
1981-1985	4	21	21	10	4	2	1	74
1986-1990	5	43	43	13	4	1	0	121
계	9(4.4)	68(33.3)	88(43.1)	26(12.7)	8(3.9)	4(2.0)	1(0.5)	204

2. 연구설계별 대상자 분포

1) 불안개념에 대한 연구설계별 대상자 분포

스트레스개념을 사용한 논문은 총 204편으로 연도별 분포를 보면 〈표 1-2〉, 1970년대가 9편, 1981년에서 1985년까지 74편, 1986년에서 1990년까지가 121편이었다. 또한 연구설계의 분포를 보면 상관성연구가 88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조사연구 68편, 비교연구 26편, 실험연구 9편, 문헌고찰 8편, 도구개발 4편, 사례연구 1편의 순으로 비실험연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면 1970-1980에는 총 7편중 4편으로 많았고 1981-1985에는 총 74편중 21편으로 그 비율이 감소되었으며 1986-1990에도 총 121편중 43편으로 그 비율이 상관성연구 다음이다. 상관성 연구를 보면 1970-1980 에는 단 1편이었으나 1981-1985에는 32편으로 논문편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1986-1990에도 55편으로 계속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비교연구에서는 1970-1980에는 3편, 1981-1985에는 10편, 1986-1990에는 13편정도이다. 그 이외에 비실험연구로는 문헌고찰이 8편, 도구개발 4 편, 사례연구 1편등이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실험연구를 보면 불안에 대한 연구 보다 현저히 적어 1970-1980에는 전혀 없었고 1981-1985 에는 4편, 1986-1990에는 5편으로 소량에 불과했다.

불안개념을 사용한 논문의 연구대상자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2-1〉, 정상인과 환자의 두 그룹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75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77편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보호자 대상이 20편, 간호학생 19편, 정상아동 19편의 순이다. 그중 특히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데 이는 간호실습에 앞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복합환자가 55편이

〈표 2-1〉 불안논문의 연구설계별 대상자 분포

설계	정 상 인						환 자								계
	성인	노인	아동	간호사	간호학생	보호자	복합환자	내과환자	외과환자	정신환자	임산부	아동환자	노인환자		
조사	5		7	4	7	14	20	6	13	1	3	5	2	87	
상관성	4	1	11	2	5	1	18	8	15	1	11	4		81	
비교						1	4	3	5	1	4	1		19	
실험	1		1		7	4	11	12	16	2	5	4		63	
중설							2							2	
계	10	1	19	6	19	20	55	29	49	5	23	14	2	252	
	75						177								

\*복합: 내, 외과 구별이 없거나 암환자, 퇴원환자, 응급실환자, 격리병동환자등 성인 환자를 혼합한 경우이다.  
 \*내과: 혈액투석, 갑상선환자, 일반검사환자, 고혈압환자, 폐

결핵환자, 나환자, 간염환자, 요통환자 등이 포함됨.  
 \*외과: 수술환자, 외상환자, 복부수술환자, 성기수술환자 등이 포함됨.

지만 내과 29편, 외과 49편의 연구까지 합치면 성인 대상이 103편으로 환자대상 논문중 상당 비율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임산부대상 23편, 아동환자 14편의 순이다.

위의 표에서 또한 특징적인 것은 노인 대상 연구가 극히 적어 정상인 1편, 환자 2편뿐이라는 점이다.

연구설계별 연구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조사연구에서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편, 성인환자(복합+내과+외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9편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성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 4편, 정상아동 11편과 성인환자(복합+내과+외과) 41편, 임산부 11편의 순이었다. 비교연구에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보호자 1편뿐이었고 성인환자 12편, 임산부 4편의 순이었다. 실험연구에서는 간호학생 대상으로 7편과 성인환자 39편이 가장 많았으며, 63편의 연구중 50편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었다.

2) 스트레스 개념에 대한 연구설계별 대상자 분포

스트레스개념을 사용한 논문의 연구대상자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2-2〉, 정상인 121 편, 환자군 75 편으로 정상인 대상 연구가 훨씬 많음을 볼 수 있어서 이는 불안을 연구한 논문과 대조를 이룬다. 그 중 정상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간호사 40편, 간호학생 35편, 성인 28편의 순으로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표 2-2〉 스트레스 논문의 연구설계별 대상자 분포

설계\대상	정 상 인						환 자								계
	성인	노인	아동	간호자	학생	보호자	복합환자	내과환자	외과환자	정신환자	임산부	노인환자	아동환자		
조사	3		1	19	23	6	11		1		3		1	68	
상관성	20		2	17	9	6	16	14		1	2			87a	
비교	4	1	1	2	1		7	5	1	4				26	
실험				1	1	1	2	2	1		1			9	
문헌							1	1						2a	
도구	1			1	1		1							4	
소계	28	1	4	40	35	13	38	22	3	5	6	0	1	196	
총계	121						75								

a : 분류하기 어려운 논문이 제외되었음.  
 \*복합: 내, 외과 구별없이 혼합한 경우와, 스트레스질환자, 암환자, 청년기를 포함함.  
 \*내과: 혈액투석환자, 갑상선환자, 당뇨병환자, 검사환자,

고혈압환자, 임산부, 불임여성, 소화성궤양환자, 편마비환자, 폐결핵환자, 베제트 증후군 등이 포함됨.  
 \*외과: 수술환자, 외상환자등이 포함됨.



간호학생의 실습 및 학업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많이 연구하였음을 볼 수 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복합환자 38편, 내과환자 22편의 순이나, 내과도 성인 대상이므로 결국 스트레스의 측정은 주로 성인환자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도 노인 대상 연구가 정상 노인 1편뿐이며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연구설계별 연구대상자의 분포를 보면<표 2-2>, 조사연구에서는 간호학생 23편, 간호사 19편과 복합환자 11편으로 가장 많았다. 상관성 연구에서는 정상성인 20편, 간호사 17편과 성인환자 30편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그래도 성인환자가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실험연구는 모두 9편이 대상자가 각 1편씩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밖의 연구로는 문헌연구가 성인환자 대상 2편이 있었고, 도구개발연구 총 4편의 대상자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3. 상관성 연구의 관련개념별 분포**

상관성연구에서 사용된 연구개념들은 한 연구에서도 여러개의 개념들이 함께 다루어졌으나 분석시에는 주요 개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개념들을 <표 3>에서 살펴볼 때 비교적 다양한 개념들에 대하여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계들이 조사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불안연구가 스트레스연구보다 더 다양한 개념들과의 관계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연구에서는 불안과 건강상태의 관계를 본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격, 가족 및 사회적지지의 순이었다. 스트레스의 연구에서는 대처 및 적응에 41편의 연구논문이 있어 스트레스와 대처 및 적응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그 다음이 건강상태, 성격, 가족 및 사회적지지의 순이었다.

또한, 불안 연구에는 있으나 스트레스 연구에는 없는 개념은 환경적요인, 통증, 영적간호요구, 학업성적, 자기노출등이었고, 스트레스 연구에만 있는 개념은 소진경험으로 9편이 연구되었다.

**4. 실험연구의 간호중재**

실험연구에서의 간호중재법을 보면<표 4>, 교육 및

**<표 3> 상관성 연구에서의 관련개념별 분포**

개 념	불 안	스트레스	계
대처, 적응	2	41	43
건강상태(신체, 정신 등)	12	17	28
가족, 사회적 지지	7	11	17
성격(건강통제위, 통제위 등)	9	12	20
자아개념, 신체상	5	7	11
일반적 특성	6	5	10
소진경험	2	9	9
우울	1	6	7
만족도(실습, 직무)	1	5	6
자아존중감	5	1	6
환경적요인(입원포함)	6	1	7
영적간호	4	-	4
학업성적	4	-	4
공포감, 절망감, 불확실성	3	1	4
통증	3	-	3
수면	1	2	3
자기노출	3	-	3
역할	1	1	2
기타	6	1	7
계	81	120a	201

a : 하나 이상의 개념과의 관계를 다루었음

기타 : 산전역할이행, 분만시간, 휴먼, 음주, 자가간호화, 질병특성등임.

정보제공이 37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완요법 18편의 순이었다. 결국 간호의 주요 간호중재법으로 교육과 정보제공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개념별 분포를 보면 불안개념을 사용한 연구가 월등히 많은데 그 중 중재법을 살펴보면 교육 및 정보제공이 35편, 이완요법 15편의 순이었다. 스트레스에 관한 실험 연구는 9편 뿐이었으며 그 중 지지간호와 이완요법이 각각 3편이었다.

**<표 4>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법 분포**

간호중재	불 안	스트레스	계
교육 및 정보제공	35	2	37
이완요법	15	3	18
지지간호	5	3	8
접촉	4	-	4
지지와 정보	0	1	1
접촉과 정보	1	-	1
감각법	1	-	1
주장훈련	1	-	1
음악요법	1	-	1
계	63	9	72

## 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다음의 몇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홍근표 외12인 (1983)의 연구에서 불안 과 스트레스가 간호연구의 주요개념이었다는 보고에 근거하여 두 개념을 선택하게 되었다. 1965년부터 1988년까지 간호학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전수조사 분석한 김수지 (1989)의 연구결과에서 스트레스를 주요 개념으로 다룬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에서 1990년까지 불안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456편에서 불안 연구가 스트레스 연구보다 더 많았다. 본 연구에서 지난 20년간의 발표된 모든 연구를 다루지는 못했으나 이상의 두 연구결과에 의해 제한적이거나 불안과 스트레스가 간호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개념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1970년 이후 10년간 조사연구의 비율이 1980년 이후보다 높은 결과는 강윤희, 이숙자 (1980)의 연구에서 1970년부터 10년간 대한간호와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총 318편중 조사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홍등 (1983)의 연구결과 1972년부터 10년간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총 199편중 55.8%가 조사연구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이 조사연구였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안연구나 스트레스연구 모두 숫적으로 급증할뿐 아니라 연구설계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조사연구 이외에 상관성연구와 실험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수지(1989)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룬 본연구에서도 조사연구나 상관성연구가 실험연구보다 그 비율이 높다. 이는 앞으로의 불안과 스트레스의 연구가 비실험연구보다 실험연구에 그 비중을 두어야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 10배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김수지(1989)의 1984년에서 1988년까지 학위 논문 분석에서와 흡사하다.

그 다음, 조사연구, 상관성연구, 비교연구등은 정상인군과 환자군을 비슷한 비율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실험연구에서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훨씬 많았고, 정상인군에서도 간호대상에 포함되는 보호자와 간호학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전체적인 간호연구 경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1970년부터 1982년까지 대한간호, 대한간호학회지에 발표된 총 386

편을 분석한 김현수(1983)의 연구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전체의 38.8%이었고, 간호사가 대상인 경우는 9.8%로 나타났으며 김수지(1989)의 연구에서는 환자 (35.4%), 간호사(19.5%)임에 비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정상인군의 불안연구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은 반면, 스트레스연구에서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과 그동안 노인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 대상의 연구가 전반적으로 적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논문의 분석연구에서 주요 관련 개념이나 간호중재별 분포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교 검토는 어렵고 본 분석 결과에 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불안 연구의 간호중재는 정보제공 및 이완요법이 주로 많았고, 스트레스 연구의 간호중재는 지지간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상관성연구를 통해 정보제공과 불안정도 또는 지지와 스트레스정도와의 관계를 검증한 후 이를 토대로 불안에 대한 정보제공의 효과, 스트레스에 대한 지지간호의 효과를 규명해 가는 연구의 체계적 발전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를 둔 간호중재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권장되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연구중에는 불안에 대한 간호중재를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스트레스 중재연구는 극히 적었다. 이는 스트레스가 심하여 distress가 되면 불안상태가 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호중재에 있어서 교육 및 정보제공, 이완요법 등 몇가지 방법에 제한되고 있어 일부에서 시도된바 있었던 감감법, 주장훈련, 음악요법등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동일 간호중재를 이용하여 수차례의 연구가 반복 실시된 경우 그 효과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Meta-analysis 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는 앞으로 지양하고 실험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V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1. 불안과 스트레스가 주요 개념으로 다뤄진 간호연구가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불안 연구나 스트레스 연구 모두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조사연구가 가장 많으나, 1980년대이후부터는 상관성연구, 실험연구, 비교연구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3. 불안은 건강상태나 성격과의 상관성, 스트레스는 대처와 적응과의 상관성을 많이 다루었다.
  4. 조사연구와 상관성연구를 이용한 불안 연구는 환자군에서, 스트레스 연구는 정상인군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실험연구에서는 불안 연구나 스트레스 연구 모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5. 불안연구의 간호중재는 교육 및 정보제공 또는 이완요법이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지지간호가 가장 많았다.
- 이와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국내 간호연구에 국한된 것이므로 국제적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둘째, 연구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설계 및 통계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심층연구가 시도되어야 하겠고, 셋째, 상관성연구와 실험연구의 경우 Meta-analysis 를 통해 개별연구들의 결과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고, 넷째, 앞으로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비실험연구보다는 실험연구에 더 역점을 두어 이론검정과 불안해소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윤희, 이숙자, 전문지를 통해 본 간호 연구의 실제, 대한간호, 1980, 19(3), 54-64.
- 김미옥, 이은옥, 건강신념모델과 한국인 만성질환자의 환자역할 행위, 대한간호, 1990, 29(3), 49-63.
- 김수지, 간호연구의 방향, 대한간호학회지, 1988, 18(2), 128-134.
- 김수지, 한국에서의 이론개발을 위한 미래전망, 대한간호학회지, 1989, 19(2), 110-115.
- 김조자, 환자의 스트레스와 가족의 방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82.
- 김연숙, 지지적 접촉과 정보제공이 입원환자 상태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현수, 일부 간호학술지로 본 간호연구의 연차적 비교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3.
- 김희순, 정서 정보지지 모임이 만성 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도복늬, 정신 간호학의 기본개념과 이론, 도복늬, 이길자, 김후자 등, 최신정신간호학, 서울: 현문사, 1990.
- 박상연, 주장훈련이 간호학생의 주장행동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7.
- 서봉연, 차재호, 조대경 등, 심리학 개론, 서울: 박영사, 1984.
- 송지호, 근육주사시 접촉과 심리적 간호가 환자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오가실, 스트레스의 개념적 기틀, Korean Honor Society of Nursing 제2회 학술모임 보고서, 1987, 49-57.
- 이소우, 정신간호 총론, 서울: 수문사, 1989.
- 이은남, 조직적인 사전 정보제공이 조혈위성격 특성에 따라 위내시경검사를 받는 환자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전명희, 계획된 간호중재가 개실환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최옥신, 입원이 불안감(Stress)으로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75, 5(1), 93-111.
- 최현자, 벤슨의 긴장 이완법과 GSR2생체회환 이완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한정석, 놀이교육이 심도자술을 받는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홍근표 외 12인,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 논문

- 분석, 대한 간호, 1983, 22(3), 115-130.
- Brennan, J. F., *History and Systems of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82 (홍대식 역, 서울 : 박영사, 1988).
- Brown, J. S., Tanner, C. A., & Paddrick, K. P., *Nursing's Search for Scientific Knowledge*, *Nursing Research*, 1984, 33(1), 26-32.
- Freud, S., *Vorlesungen Zur Einfuhrung In Die Psychoanalyse*, 1930, (구인서 역, 서울: 학원출판 공사, 1984.)
- Garbin, M., ANS Open Forum, *ANS*, 1979, 1(4), 101-104.
- Gomez, E. A., Gomez, G. E., and Otto, D. A., Anxiety as a Human Emotion : Some Basic Conceptual Models, *Nursing Forum*, 1984, 11(1), 38-42.
- Guzzetta, C. 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Learning, *ANS*, 1979, 1(4), 35-49.
- Hall, C. S.,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4 (이상노, 이관용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1).
- Hayter, J., Institutional Sources of Articles Published in 13 Nursing Journal, 1978-1982, *Nursing Research*, 1984, 33(6), 357-382.
- Holmes, T. H. and Rahe, R. 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974, Vol. 9, 213-218.
- Jacobsen, B., & Meininger, J. C., The Designs and Methods of Published Nursing Research : 1956-1983, *Nursing Research*, 1985, 34(5), 306-312.
- Johnson, M. N., Anxiety / Stress and thr Effects on Disclosure between Nurses and Patients, *ANS*, 1979, 1(4), 1-20.
- Kim, S., *Preparatory Information, Anxiety and Pain : A Contingency Model and Its Implication*, Bosto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78.
- Lamontagne, L. L., Mason, K. R., & Hepworth, J. T., Effects of Relaxation On Anxiety in Children : Implications for Coping With Stress, *Nursing Research*, 1985, 34(5), 289-292.
-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1984.
- Lommis, M. E., Emerging Content in Nursing : An Analysis of Dissertation Abstracts and Titles : 1976-1982, *Nursing Research*, 1985, 34(2), 113-119.
- Lowery, B. J., Stress Research : Som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MAGE :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87, 19(1), 42-46.
- Maloney, J. P., Job Stress and Its Consequences on a Group of Intensive Care and Non-intensive Care Nurses, *ANS*, 1982, 4(2), 31-42.
- McFarland, and McFarland, Anxiety, In *Nursing Diagnosis and Intervention Planing for Patient Care*, Mosby, 1989.
- McReynolds, P., Changing Concept of Anxiety : A Historical Review & A Proposed Intergration. In C. Spielberger & I. Sarason (ed), *Stress & Anxiety*, 1975, Vol. 2. New York : John Wiely & Sons.
- Moody, L. E., Wilson, M. E., Smyth, K., Schwartz, R., Tittle, M., and Cott, M. L. V., Analysis of a Decade of Nursing Practice Research : 1977-1986, *Nursing Research*, 1988, 37(6), 374-379.
- Neitzel, M. T., & Bertein, D. A., Assessment of Anxiety and Fear, In M. Hersen & A. Bellack (ed), *Behavioral Assessment*, New York : Pergamon Press, 1981.
- Scott, D. W., Oberst, M. T., & Dropkin, M. J., A stress-Coping Model, *ANS*, 3(1), 9-23, 1980.
- Seyle, H., Stress and the General Adaptation Syndrome, *British Medical Journal*, 1952, June, 1383-1392.
- Seyle, H., *The Stress of Life*, New York : McGraw-Hill Co., 1956.
- Spielberger, C., Anxiety : State-Trait Process, In C. Spielberger & I. Sarason, ed. *Stress & Anxiety*, 1972, Vol. 1. New York : John Wielej & Sons.
- Stuart, G. W., and Saudeen, S. J.,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 Mosby, 1983.

Abstract

**Analysis of Studies of Anxiety and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70 to 1990**

*Lee, Eun Ok*<sup>(1)</sup> · *Lee, Eun Joo*<sup>(2)</sup>  
*Lee, Eun Hee*<sup>(3)</sup> · *Chun, Kyung Za*<sup>(4)</sup>  
*Kim, Joo Hyun*<sup>(5)</sup> · *Park, Chai Soon*<sup>(6)</sup>  
*Lee, Byung Sook*<sup>(7)</sup> · *Jung, Myun Sook*<sup>(8)</sup>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patterns and trends of studies of anxiety and stress and 2) to provide direction on which to base further research.

Research studies of anxiety and stress were selected from journals of medical and nursing schools, the Korean Nurse, the Korean Nurses' Academic Society Journal, the Central Journal of Medicine, the New Medical Journal, Monthly Nurse, and from theses and dissertations, which had been conducted for the 20 years from 1970 to 1990. The total population of the studies numbered 463. Seven studie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because of duplication, so that 252 studies of anxiety and 204 of stress were analyzed.

These studies were analyzed for 1) time of publication or presentation, 2) research design, 3)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sed in each study, 4) types of correlated variables, and 5) types of nursing interventions.

Findings obtained in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anxiety and

stres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early 1980's.

2. The studies were primarily descriptive throughout the 20 years. However, correlational studies, comparative studies and experimental studies slowly increased.

3. Anxiety studies tend to be conducted more on patients and stress studies with normal subjects in non-experimental research. However, experimental studies were conducted more with patients than with normal subjects.

4. In correlational studies, the trend was to study physical conditions in relation to anxiety, and coping and adaptation in relation to stress.

5. In experimental studies, teaching and information therapy and relaxation were the most popular interventions for anxiety, and supportive care for stress.

On the bases of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made :

1. These patterns of studies related to anxiety and stress in Korea need to be compared with studies conducted in other countries.

2. More attention is needed in terms of research desig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ools, and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3. Meta-analysis should be done to analyze and integrate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4. For theory testing and identification of useful intervention methods, experimental studies with the same protocols must be conducted rather than more descriptive studies.

(1) Department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 Halla Junior College.

(3) National Wonju College.

(4) Department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5) National Cheungju College.

(6)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college, Catholic University.

(7)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college, Kosin University.

(8)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college, Gyeong Sang University.

## 부 록

- Lee, SW, Hah, YS and Park, ES, A Factor Analysis of the Stress of Hospitalization, *Seoul Journal of Nursing*, 1986, 1, 23-38.
- Park, YS and Han, KJ, Effects of Lamaze Method on State-Anxiety and Labor Pain, *Seoul Journal of Nursing*, 1987, 2, 15-25.
- 강경희, 응급실 간호사의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간호수행 정도와의 관계, 경북대 석사논문, 1989.
- 강명옥, 정신과 외래환자 가족의 불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88.
- 강수금, 스트레스 질환자와 정상인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1987.
- 강수금, 간호학생의 불안 정도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성신간진 논문집, 1990, 4, 10-19.
- 강순희, 혈액투석중인 환자의 상태불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85.
- 강윤숙,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지도에 관한 연구,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6, 8, 96-126.
- 강은순, 환아입원에 따른 보호자의 간호요구 영역별 불안도, *중앙의학*, 1981, 40(4), 218-232.
- 강은실, 입원환자가 받은 불안 정도에 관한 연구, 복음간진 논문집, 1983, 1, 57-69.
- 강정희, 임신부의 불안 공포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0, 10(2), 1-12.
- 강정희, 임신부의 성생활과 불안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3, 13(1), 1-12.
- 강정희,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현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간호학회지*, 1989, 19(2), 203-211.
- 강정희,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적응방법에 대한 비교, 연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9.
- 강지숙, 스트레스가 일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4, 14(1), 1-20.
- 강현숙,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stress와 stress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공주전문논문집*, 1990, 17, 185-208.
- 강현숙, 기본간호학 실습 videotape를 이용한 사전교육이 첫 임상실습전 불안에 미치는 효과, *공주전문 논문집*, 1990, 17, 171-184.
- 고미혜, 수술전 환자의 영적 간호요구와 불안과의 관계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1989.
- 고성희,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 및 그 적응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간호학회지*, 1979, 9(1), 23-29.
- 고성희, 스트레스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전북의대부속 간진논문집*, 1982, 8, 90-103.
- 고일신, 간호중재를 위한 불안내용 및 정도의 분석적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0.
- 고효정, 간호전문대학 학생들이 아동간호학 실습시 느끼는 스트레스, *동산간진 논문집*, 1988, 5, 19-40.
- 공수자, 오송자, 박영희,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 조선대 병설 논문집, 1989, 10, 1-16.
- 구미옥, 심도자술과 심혈관 조형술 검사전에 시행된 조직적인 환자교육의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 구미옥, 김매자, 임상간호원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분석적 연구, *간호학회지*, 1985, 15(3), 39-49.
- 권수자, 갑상선기능 항진증 여성 환자의 불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2.
- 권수자,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 1986, 50(5), 315-324.
- 권수자, 당뇨병 환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 *경주실업전문대 논문집*, 1987, 3, 95-102.
- 권숙희,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전실 및 전동후 불안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0.
- 권연숙, 약물요법에 관한 교육이 암환자의 지식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1988.
- 권은옥, 가족구성원의 입원으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0.
- 김경희, 학생들이 아동간호학 실습시 느끼는 스트레스, *간호학 논문집*, 1987, 10, 122-138.
- 김금순, 심도자 검사에 관한 정보제공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 박사논문, 1990.
- 김금자, 입원 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 스트레스 및 건강 통제위 성격간의 관계, 이대 석사논문, 1987.
- 김금자,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내용과 정도에 관한 연구, *예수간진 논문집*, 1985, 3(1), 29-58.

- 김금재, 스트레스가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의 부속간전 논문집, 1983, 9, 81-88.
- 1기숙, 병원 간호원들의 불안요인에 관한 연구, 국립의료원 간전 논문집, 1981, 2, 77-112.
- 김기숙, 정신과 환자 퇴원시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77, 7(2), 31-42.
- 김기순, 점진적 근육이완요법이 항암 화학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안도 및 오심, 구토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8, 41(1), 443-452.
- 김매자, 구미옥, 간호원이 근무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연구, 간호학회지, 1984, 14(2), 28-37.
- 김명남, 일 전문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시 스트레스 요인과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강전문대학 논문집, 1989, 8, 343-357.
- 김명남, 일 전문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시 스트레스 요인과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강전문대학 논문집, 1989, 8, 343-357.
- 김명남, 정신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소진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8.
- 김명자, 지지간호가 입원환자 및 가족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인간과학, 1985, 9(12), 820-840.
- 김명자, 입원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통제위 성격 및 대처방법과의 상관관계 연구, 전남의대 논문집, 1986, 23(1), 27-46.
- 김명희, 입원환자들의 특성과 입원불안과의 관계, 부산의대 학술지, 1985, 25(2), 221-229.
- 김미원, 사춘기 입원아동의 불안, 최신의학, 1988, 31(5), 135-140.
- 김미자, 수술전 환자의 불안정도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 김방자, 산업체 특별학급 여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 경북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0.
- 김복량, 임상간호원의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선린여전문집, 1989, 9, 285-311.
- 김봉숙, 스트레스 이론을 이용한 간호과정의 적용에 대한 사례연구, 청주간전 논문집, 1985, 11, 153-166.
- 김봉임, 고등학생의 시험에 대한 대응방법과 성격, 입시 불안과의 관계, 경북대 석사논문, 1983.
- 김선애, 입원한 암환자들의 불안정도와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성신간전 논문집, 1984, 2, 19-46.
- 김선영, 학령기 입원아동과 비입원 아동의 불안과 공포에 관한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 김선영,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족의 불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6.
- 김설자, 스트레스 인지, 통제위 성격,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김천간전 논문집, 1984, 12, 87-145.
- 김성재, 척추마취환자에게 행한 수술실에서의 심리간호가 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 석사논문, 1984.
- 김성재, 일부 간호전문대생이 직업선택시 경험하는 우울정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 청주전문대논문집, 1990, 7, 163-180.
- 김수진, 일부 남학생의 흡연 및 음주상황과 불안도 평가,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81.
- 김수진, 박인혜, 조복희, 일부 고교생들의 자아개념과 불안 및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 전남의대잡지, 1989, 26(1), 27-41.
- 김순애, 이완술 정보 제공이 심도자 검사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대 석사논문, 1987.
- 김순이, 암환자 자아존중감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5.
- 김순이, 외상환자의 신체상과 상태불안에 대한 연구, 대전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8, 14, 163-180.
- 김승혜, 장기혈액 투석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불안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4.
- 김애리, 두부 외상환자의 불안요인 및 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8.
- 김연숙, 지지적 접촉과 정보제공이 입원환자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대 석사논문, 1985.
- 김연태,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적 지지정도와와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9.
- 김연화, 수술 환자의 상황 불안이 수술후 신체회복에 미치는 영향, 경북의대지, 1985, 27(2), 238-245.
- 김영경, 혈액투석 환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대처방법, 지산간, 보건전문대 논문집, 1985, 3, 73-93.
- 김영경,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노정분석연구, 이대박사논문, 1990.
- 김영규, 연령, 성, 사회계층별 이상생활의 스트레스와 대응방법의 비교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81.
- 김영남, 정신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소진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8.
- 김영수, 혈액투석환자가 지각한 스트레스와 그에 적응

- 하는 자세에 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3.
- 김명재, 김미원, 대학생들의 환경적 특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 병설논문집, 1986, 7, 69-80.
- 김영혜, 학령기 아동의 공포 및 불안에 대한 일 연구, 대동간전 논문집, 1983, 3, 69-82.
- 김영혜, 소아병실에 입원한 아동의 불안에 대한 일 연구, 대동간전 논문집, 1984, 4, 41-53.
- 김옥수,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7, 52(8), 518-524.
- 김옥수, 흡연자의 건강통제위 성격과 불안도에 관한 연구, 성신간전 논문집, 1986, 3, 61-83.
- 김옥정, 편도선 절제술 환자의 수술전 그림색칠 놀이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석사논문, 1987.
- 김옥현, 자기노출과 불안과의 관계-간호원, 환자 대상으로-,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 김윤주, 일반인과 정신과 환자의 stress에 관한 비교 연구, 원주전문대학 논문집, 1977, 3, 127-154.
- 김윤희, 정신과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1, 11(1), 45-64.
- 김윤희,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요인 및 이상행동 유형, 경희간호 연구지, 1988, 12, 57-77.
- 김은자, 스트레스에 관한 개념분석, 마산간전 논문집, 1986, 11, 41-64.
- 김인숙, 김송자, 입원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안감에 관한 연구, 조선대 의학연구, 1982, 7(1), 105-116.
- 김인숙, 노현주, 혈액투석환자의 스트레스와 자가간호와의 관계연구, 조선의대논문집, 1990, 15(1), 113-128.
- 김인숙, 주경옥, 나덕미, 도시근로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건강상태와의 관계연구, 조선의대논문집, 1989, 14(1), 61-76.
- 김인순, 입원환자의 불안정도에 관한 분석연구, 공주전문 논문집, 1983, 10, 261-272.
- 김인순, 입원환자의 연령별 불안도 비교분석, 공주전문 논문집, 1984, 11, 215-230.
- 김인순, 성인환자의 입원횟수에 따른 불안도에 관한 분석연구, 김천간전 논문집, 1979, 7, 217-237.
- 김인순, 성인환자의 입원불안도에 관한 분석연구, 김천간전 논문집, 1980, 8, 109-126.
- 김인순, 소아병실에 입원한 어린이의 불안정도에 관한 분석, 김천간전 논문집, 1978, 6, 155-173.
- 김인순, 이선영, 결핵 요양원 간호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공주전문 논문집, 1987, 14, 291-308.
- 김정애, 이정희, 환자와 정상인의 불안상태에 관한 비교 연구, 중앙의대지, 1983, 8(3), 301-311.
- 김정인, 이완요법이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5.
- 김정자, 일반 복부 수술환자와 부인 성기 수술환자의 퇴원시 불안을 중심으로,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984, 6, 3-22.
- 김정주, 불안관계 요인 및 만삭임부의 상황불안정도와 신생아 Apgar점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5.
- 김정화, 의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입원환자의 불안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8.
- 김조자, 환자 스트레스와 가족방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 간호학 논문집, 1982, 6, 13-20.
- 김주희, 김현실, 입원환자 가족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3, 13(1), 42-56.
- 김지윤, 입원환자의 기질불안, 상태불안 및 입원 불안과의 관계, 중앙의학, 1981, 41(1), 41-56.
- 김진옥, 정신과 환자 입원퇴원시 가족들의 상황불안정도, 경북대 석사논문, 1984.
- 김태욱, 노년층과 젊은 층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1.
- 김행자, 일부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시 느끼는 불안수준에 관한 연구, 월간간호, 1980, 9, 83-99.
- 김행자,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75, 5(2), 29-37.
- 김혜령, 불안감소로 인한 간호중재로서의 Touch가 입원환자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5.
- 김혜령, 정서적 이완이 간호학생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최신의학, 1988, 31(2), 109-118.
- 김혜령, 간호학생의 불안감소를 위한 이완술 적용, 동우전문대학논문집, 1990, 4, 1-18.
- 김혜령, 이완요법이 입원환자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동우전문대논문집, 1988, 3, 365-377.
- 김혜순, 신규간호원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2.
- 김혜순, 일부 인천시내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불안감 정도에 관한 연구, 경기간전논문집, 1979, 10, 235-274.



- 김혜순, 최공옥, Manifest Anxiety Scale(MAS)에 의한 간호학생의 불안도 평가, 경기간전 논문집, 1981, 12, 89-114.
- 김혜옥, 간호학생의 불안도 평가, 수원간전 논문집, 1980, 6, 189-203.
- 김혜원, 불임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 김혜원, 고위험 임신과 상태불안과의 상관관계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4.
- 김혜중, 신혜숙, stress가 모아에게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 논문집, 1984, 16, 220-224.
- 김화신, 일부 간호학생들의 불안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 중앙의학, 1988, 53(5), 275-284.
- 김황주,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학령기 환자의 불안반응에 대한 연구,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1.
- 김후자, 불안척도에 의한 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평가, 영남공전 논문집, 1988, 16, 387-398.
- 김희경, 중년여성의 자아개념,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 동우전문대 논문집, 1990, 4, 417-443.
- 김희숙, 정신과 환자의 제요인에 따른 불안정도, 경북대 석사논문, 1985.
- 김희순, 정서, 정보적 지지 모음이 만성질환아 어머니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9.
- 김희순,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응반응에 대한 기초조사, 영남공전논문집, 1987, 16, 411-420.
- 김희승, 한윤복, 김명자, 노유자,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활력증상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간호학회지, 1987, 17(2), 137-144.
- 나성숙, 간호업무의 스트레스 인지정도, 중요도 및 경험 정도의 상관관계 연구, 김천간전 논문집, 1985, 13, 191-204.
- 나성숙,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김천간전 학생을 중심으로), 김천간전 논문집, 1984, 12, 173-204.
- 나성숙, 김설자, 간호학생의 불안정도와 불안내용에 관한 조사연구, 김천간전 논문집, 1987, 15, 97-128.
- 나성숙, 김옥란,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응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김천간전 논문집, 1983, 11, 107-133.
- 나현주, 임상간호원의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건강상태의 상관관계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87.
- 나현주, 도시와 농촌주민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순천간전 논문집, 1988, 12, 243.
- 남은숙, 임신부의 산전역할 이행과 불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85.
- 남은숙, 간호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연구, 원광보건 논문집, 1983, 6, 341-352.
- 남은숙, 자궁적출술 환자의 수술전 상태불안과 불안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보건 논문집, 1985, 8.
- 노명옥,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상태불안이 신체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 노승옥, 학령기 환자의 일반적 공포감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4.
- 노혜숙, 여자 중학생의 자아개념 발달과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 석사논문, 1986.
- 도복늬,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의학, 1982, 42(1), 135-140.
- 도복늬,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대응하는 방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의학, 1982, 42(2), 79-84.
- 류성숙, 질병과 관련된 환자의 stress 지각정도와 가족 및 간호사의 대환자 지각 정도의 차이,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90, 43(1), 379-392.
- 류정혁, 뇌성마비 아동의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적 지지 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 마윤경, 혈액투석 환자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월간간호, 1985, 12, 73-84.
- 모경빈, 청장년 발달기 입원불안에 대한 내용분석, 최신 의학, 1986, 29(12), 156-166.
- 모경빈, 성인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의 관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85.
- 모경빈,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불안반응과의 연구, 최신의학, 1983, 26(12), 207-213.
- 문영숙,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교육이 초임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

- 지, 1980, 10(1), 11-19.
- 문영숙, 박인숙, 입원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에 대한 연구, 충남의대잡지, 1988, 15(2), 639-652.
- 문정순, 한성숙, 김순례, 나환자들의 불안에 관한 연구, 월간간호, 1985, 9(2), 66-81.
- 민 순, 암환자의 기독교 신앙성숙과 불안과의 관계 연구, 간호학회지, 1989, 19(1), 118-126.
- 민병옥, 김명희, 일부 간호전문대생들의 상태불안에 관한 연구, 서울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90, 5, 49-74.
- 민복기, 일부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시 느끼는 불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8, 14, 105-126.
- 민복기, 최영숙, 불안과 본태성 고혈압의 관계에 관한 예비적 연구, 대전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0, 6, 197-207.
- 박경신, 정영, 일부여자 중학생의 초경에 대한 불안정도와 적응 및 태도에 관한 관계연구, 조선의대 논문집, 1987, 12(1), 187-202.
- 박금례, 일부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월경증상 호소에 관한 조사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8.
- 박금자, 치료적 접촉이 초산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효과, 이대 석사논문, 1985.
- 박문희, 정승희, 간호원의 업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8, 53(2), 109-117.
- 박미영,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인식도 조사 연구, 대전간전 논문집, 1981, 7, 167-178.
- 박미영,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간전 논문집, 1984, 10, 91-106.
- 박미영, 밤번근무 간호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선린여전 논문집, 1990, 10, 105-130.
- 박미영, 이정자, 입원환자의 제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대전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2, 8, 113-126.
- 박미화, 이완술교육이 방광경 검사 환자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논문, 1988.
- 박봉주, 초임부의 건강 통제위 성격특성과 상태, 기질 불안 정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 박봉주, 임부의 상태불안 요인에 관한 연구, 진주간전 논문집, 1987, 10, 151-163.
- 박상연, 제 특성에 따른 수술환자의 상황불안 변화, 중앙의학, 1981, 40(1), 65-69.
- 박상연, 성별, 수술부위 출산계획이 다른 수술환자의 상황 불안 비교, 간호학회지, 1979, 9(1), 9-22.
- 박상연, 체계적 감각법이 수술환자의 상황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중앙의학 1981, 40(6), 411-416.
- 박상연, 주장훈련이 간호학생의 주장행동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대 석사논문, 1987.
- 박상연, 김미예, 도복늬, 수술전에 행한 이완훈련이 수술전 불안과 수술후 동통지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의학, 1985, 48(2), 115-121.
- 박순옥, 혈액투석 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에 관한 연구, 예수간전 논문집, 1988, 5(1), 79-114.
- 박순옥, 혈액투석 환자의 자아개념과 불안에 관한 연구, 예수간전 논문집, 1990, 6(1), 23-48.
- 박순옥, 소화성 궤양환자와 비소화성 궤양환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간호, 1986, 25. 1, 85-101.
- 박승현, 아동의 질병특성에 따른 불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 박연숙, 스트레스에 대한 생체적 적응훈련, 공주전문 논문집, 1985, 12, 211-224.
- 박영선, 지지적 간호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대 석사논문, 1988.
- 박영숙, 허영, 병원 분만 임신부의 분만전 불안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1986, 16(2), 29-35.
- 박용규, 수술전 환자의 상태불안과 신체상과의 관계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6.
- 박원경,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환자가 지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8.
- 박인숙, 공수자, 김란, 입원환자의 불안상태에 관한 연구, 조선대 병설 논문집, 1987, 8, 87-98.
- 박인순, 입원환자가 받은 불안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 병설전문대 논문집, 1984, 5, 119-126.
- 박인혜, 김수진, 조복희, 일부 고교생들의 자아개념과 불안 및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 전남의대잡지, 1989, 26(1), 27-41.
- 박정숙, 입원환자 가족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3.
- 박정숙, 이완술 사용이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직전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986, 16(3), 123-130.
- 박정숙, 이완술이 혈액투석환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 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990, 1, 38-56.
- 박정옥, 정보제공이 입원환자 불안해소에 미치는 효과, 간호학회지, 1975, 5(2), 1-10
- 박청자, 입원환자의 불안감에 대한 조사 연구, 동산간전 논문집, 1984, 1, 35-78.
- 박청자, 간호대학생들이 임상학습시 느끼는 스트레스, 동산간전 논문집, 1988, 5, 77-92.
- 박현옥,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82.
- 박형숙, 임신부의 성생활 실태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1985, 28(6), 117-125.
- 박혜경, 입원환자의 건강통제위 성격과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개정간전 논문집, 1986, 6, 143-168.
- 박혜자, 간호원의 소진경험과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6.
- 박호란, 주사시 간호제공방법에 따른 어린이 불안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1.
- 박호숙, 입원환자 가족의 불안정도와 내용에 관한 연구, 성신간전 논문집, 1990, 4, 72-81.
- 박호숙, 일부 간호원의 간호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의 유형 및 소진정도와와의 관계, 중앙의학, 1987, 52(9), 557-565.
- 박호숙, 간호학생의 스트레스요인과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1987, 30(8), 86-92.
- 박효경, 정신과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북음간전 논문집, 1989, 6, 83-92.
- 박후남,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와 그에 관한 간호원의 인식정도 비교조사, 순천간전 논문집, 1983, 9, 45.
- 배영숙, 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 방법에 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1982.
- 배영숙, 종합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기독교병원간전 논문집, 1978, 5, 193-215.
- 배정미, 정신과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 대한간호, 1989, 28(1), 77-87.
- 배정미, 정신질환, 간호대상자, 부모의 불안에 관한 연구, 경주실업전문대 논문집 1989, 9, 120-129.
- 배정미, 서문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9, 19(3), 259-273.
- 배행자, 초임부 배우자의 산전교육이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5.
- 배행자, 일 지역 초임부 배우자의 스트레스 요인 및 상 황에 관한 기초연구, 최신의학, 1987, 30(1), 141-151.
- 백경원, 일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진주간전 논문집, 1989, 12, 1-20.
- 백남희, 백내장 적출술전 간호정보제공이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의학부 논문집, 1986, 393, 1003-1017.
- 백영주, 청년기 환자의 입원생활에 따른 긴장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76, 6(1), 72-79.
- 백태복, 하지골절 환자의 입원기간, 골절원인 및 부위 입원 경험에 따른 상황불안 정도, 경북대 석사논문, 1984.
- 백현실,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방법,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1990.
- 백혜경, 간호장교의 통제위성격과 스트레스 반응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6.
- 백혜자, 수술환자 불안원인에 대한 조사 연구, 춘천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4, 14, 81-104.
- 변양숙, 수술환자의 수술전후 불안과 회복정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77.
- 변영순, 중환자실 간호원이 간호활동 수행시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의학, 1981, 41(5), 349-363.
- 변영순, Scott와 Howard의 스트레스 모델분석, 월간간호, 1985, 11(2), 61-68.
- 변희재, 흥경자, 산모교육의 효과와 제요인의 산모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최신의학, 1982, 25(7), 123-134.
- 서문경애, 입원시 환자의 불안요인 및 정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9.
- 서삼순, 고 3의 self-rating anxiety scale에 의한 불안에 관한 연구,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982, 4, 117-138.
- 서연옥, 임신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87.
- 서해경, 이완술 사용이 위내시경 검사환자의 불안과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 논문, 1990.
- 성경숙, 간호원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요인과의 상관관계연구, 연대 교육 석사논문, 1984.
- 성혜숙, 제왕절개 및 정상 분만 임부의 분만전후 상태-불안 반응에 관한 비교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1.

- 소영희,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88.
- 소희영, 입원환자 가족의 불안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잡지, 1983, 10(1), 166-179.
- 소희영, 김현리, 수술환자의 불안, 성격, 가족지지에 관한 조사연구, 충남의대지, 1986, 13(2), 437-444.
- 소희영, 김현리, 수술환자의 불안요인 분석, 충남의대지, 1987, 14(2), 545-550.
- 손경희,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3.
- 손영주, stress에 관한 문헌연구, 제주간전 논문집, 1984, 8, 117-132.
- 손영희, 퇴원환자의 불안에 관한 조사연구, 국립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2, 3, 139-178.
- 송경애, 장기 혈액투석 환자의 기질불안 정도와 합병증 발생과의 관계, 최신의학, 1986, 29(2), 167-174.
- 송경애, 한상임, 자궁적출술 전 정보제공이 수술후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간호, 1986, 7, 56-69.
- 송금순, 일부 도시생활인의 stress 정도와 해소에 관한 조사 연구, 춘천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4, 14, 35-80.
- 송말순, 수술실 간호원의 역할, 스트레스, 소진경험 정도와 직무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송미순, 신계영, 근육이완 요법이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 구토, 불안, 불편감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987, 17(3), 195-203.
- 송애리, 일 간호학생의 성격과 임상실습시 느끼는 불안 수준에 관한 연구, 진주간전 논문집, 1988, 11, 37-52.
- 송지호, 근육주사가 입원 환자의 생리적 불안반응에 미치는 영향, 국립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8, 7, 45-74.
- 송지호 근육주사시 접촉과 심리적 간호가 환자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대석사논문, 1987.
- 신순제, 입원한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의 불안과 간호(정보제공, 대화중심으로)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구전문대 논문집(한별학숙 논문집), 1983, 7, 173-210.
- 신인숙, 정상 초산부의 입원시 상태불안 정도와 분만시간에 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1988.
- 신재신, 수술환자들의 성별, 수술규모에 따른 특성-상태불안 비교-, 부산의대 잡지, 1981, 21(2), 473-478.
- 신정자, 일부 전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및 적응 행동, 경북대 석사논문, 1987.
- 신진희 폐결핵환자의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3.
- 안나옥, 시범교육이 석교봉대체거시 어린이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대 석사논문, 1986.
- 안대현, 일부 군 병원 입원환자의 불안요인 및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4.
- 안혜정, 일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연구, 선린여전 논문집, 1989, 9, 215-243.
- 안황란, 일 지역 임신부의 스트레스 요인 및 상황과 간호중재에 대한 기초연구 간호학회지, 1983, 13(3), 75-85.
- 안황란, 초임부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지지강화 교육의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간호학회지, 1985, 15(1), 5-16.
- 안황란, 구미옥, 최미혜, 정면숙, 간호원의 스트레스 관리교육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간호학회지, 1986, 16(1), 40-48.
- 안효덕, 응급실 환자가족의 상태불안과 불안요소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7.
- 양선희,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최신의학 1988, 32(3), 131-144.
- 양수, 유숙자, 서울시내 일부 간호사들의 불면발생과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관계조사, 최신의학, 1988, 31(5), 125-134.
- 양원영, 헌혈자들의 헌혈전후 불안해소를 위한 실험연구,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2, 4, 55-70.
- 양윤하, 일부 종합병원 노년기 입원환자들의 불안내용 및 정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1983.
- 양정임, 입원환자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1987.
- 양진향, 이완술이 고등학교 학생 불안감 해소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논문, 1990.
- 여옥남, 일부농촌주민의 우울정도와 그 유발요인으로서의 스트레스사건, 대구전문대논문집(한별학숙 논문집), 1987, 11, 87-96.
- 연용하, 간호원의 스트레스 정도와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89.
- 연용하, 입원환자가 받은 불안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 국립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5, 5,

- 153-190.
- 임영희,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동남보건전문대 논문집, 1985, 7, 186-207.
- 오가실, 소아과 간호학 실습시 느끼는 성년기 간호학생들의 긴장감에 대한 실험적 연구, 간호학회지, 1974, 4(3), 33-56.
- 오가실, 한정석, 스트레스 생활사건, 건강문제, 대응, 사회적 지지의 관계-청소년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1990, 20(3), 414-429.
- 오경옥, 홍춘실, 이해경,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방식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지, 1981, 8(2), 295-306.
- 오경옥, 김태숙, 청소년의 불안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잡지, 1980, 7(2), 32-40.
- 조은숙, 오경옥, 일부 결핵병원 입원환자와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및 적응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충남의대잡지, 1983, 10(1), 190-200.
- 오경옥, 홍춘실, 맹아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잡지, 1981, 8(1), 52-58.
- 오상은, 입원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논문집, 1986.
- 오송자, 김영재, 박영주, 건강한 학령기 아동의 불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간전논문집, 1988, 9, 47-55.
- 오송자, 오순애,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조선대병설간전 논문집, 1986, 7, 189-200.
- 오순애, 박명희, 유경원, 자아 존중감과 스트레스 적응 방법과의 관계분석 연구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조선대병설간전 논문집, 1986, 7, 159-174.
- 오현자, 밤근무시 간호원의 소진경험 정도와 스트레스 요인, 중앙의학, 1987, 52(2), 91-100.
- 오현지, 임상 간호원의 야근에 대한 불만요인과 불안정도, 경북대 석사논문, 1983.
- 원종순, 혈액투석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 스트레스 및 절망감간의 관계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7.
- 유미영, 응급실 환자의 불안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7.
- 유영희, 수술실 간호원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연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 유영희,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심신건강에 관한 연구, 강릉간전 논문집, 1987, 13, 273-290.
- 유인숙, 간호원이 근무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부산의대잡지, 1985, 25(2), 137-144.
- 유호신, 우리나라 병원분만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0.
- 윤석옥, 보건 진료원의 역할 스트레스, 소진경험정도과 직무만족도간의 관계요인, 복음간전 논문집, 1985, 3, 85-100.
- 윤성림, 베체트 증후군 환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의 관계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 윤은순, 사전 간호정보제공이 뇌혈관조영술 검사시 환자의 불안반응에 미치는 효과, 연대 석사논문, 1987.
- 은 영, 입원중인 환아 어머니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 1988, 53(10), 749-758.
- 은 영, 일부 간호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적응행동 및 건강 통제위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6, 51(1), 15-25.
- 이경순, 간호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 연대 석사논문, 1983.
- 이경순,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간호학생의 stress요인 분석, 삼육대학 논문집, 1984, 16, 225-233.
- 이경애, 입원 환자의 기질불안과 지각하고 있는 인정 지해와의 상관관계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88.
- 이경옥, 고혈압환자와 비고혈압환자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간호학회지, 1983, 13(2), 58-69.
- 이규은, 월경불편과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관계연구, 강릉간전 논문집, 1987, 13, 219-250.
- 이규은, 불임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영동전문대 논문집, 1989, 15, 305-330.
- 이덕순, 유아원 교사의 스트레스 반응, 직무만족, 이직 반응과의 관계연구, 영남대석사논문, 1986.
- 이명숙, 노년기 환자의 입원생활에 따른 간호요구 영역별 불안도에 관한 비교 조사연구, 성신간전 논문집, 1984, 2, 121-140.
- 이명숙, 접촉에 의한 정보제공이 위내시경환자의 불안 정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석사논문, 1989.
- 이명애, 입원 환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일 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0.
- 이문임, 음악요법이 정신질환자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석사논문, 1989.
- 이미경, 정보제공이 자궁적출술 환자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983, 13(2), 70-86.
- 이미현, 만성질환아 부모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법

- 에 대한 연구, 청주간전 논문집, 1985, 11, 224-244.
- 이미화, 위 엑스선 검사시 정보제공이 입원환자의 불안해소에 미치는 효과, 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983, 3, 63-75.
- 이미화, 수술전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에 관한 일 연구, 중앙의학, 1979, 36(5), 385-391.
- 이미화, 진단검사시 정보제공이 입원환자의 불안해소에 미치는 효과, 서원보건논문집, 1982, 4, 141-152.
- 이미화, 입원중인 척수손상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 이병숙, 암환자의 치료방법에 따른 불안에 대한 연구, 복음간전 논문집, 1986, 4, 71-81.
- 이복희, 입원환자의 건강조절위와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연구, 동남보건전문대 논문집, 1985, 2, 123-137.
- 이복희, 전화연,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5년전과비교), 동남보건전문대 논문집, 1990, 7, 75-89.
- 이상미, 심장수술전 어린이의 불안과 어머니의 불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1.
- 이선영, 주부들의 불안도 평가, 공주전문 논문집, 1982, 9, 191-206.
- 이선영, 당뇨병환자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 공주전문 논문집, 1985, 12, 243-256.
- 이선영, 당뇨병환자와 정상인의 스트레스 및 적응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충남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이성자, 혈액 투석자의 자아존중감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 이소우, 입원 스트레스가 수면형태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986, 16(2), 36-43.
- 이소우, 수술전 환자 불안과 수면량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1982, 25(2), 118-124.
- 이소우, 하양숙, 박은숙, 입원환자가 경험한 입원 스트레스 순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5, 15(1), 17-29.
- 이숙자,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및 통제위 성격과의 관계연구,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989, 7, 5-19.
- 이숙자, 혈액투석환자의 건강 통제위 성격, 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관계 연구, 중앙의학, 1989, 54(1), 17-34.
- 이안라, 이완술 정보제공이 심장 판막 풍선확장술 시술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 이애란, 입원환자의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 이애란, 정맥주사로 인한 환아와 어머니의 불안에 관한 연구, 원광보건연구지, 1984, 7, 181-190.
- 이애현, 불안 및 지능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영대학생 연구, 1982, 13(2), 1-15.
- 이애현, 아동의 불안정도 및 지능과 과목별 학업성취와의 관계, 중앙의학, 1984, 46(1), 75-82.
- 이연희, 제왕절개 분만과 질식 분만시 불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3.
- 이영자, 위험시술에 대한 정보제공이 환자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부산식대 학술지, 1984, 24(2), 177-182.
- 이옥정, 아동의 입원불안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원주전문대학 논문집, 1977, 3, 97-126.
- 이은남, 조직적인 사전 정보제공이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4.
- 이은자, 수술전 교육이 수술환아와 어머니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충남대 석사논문, 1984.
- 이은주, 건강한 학령기 아동의 질병에 대한 불안, 제주간전 논문집, 1987, 11, 229-238.
- 이은주, 입원환자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5, 48(4), 247-254.
- 이은주,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조사, 순천간전 논문집, 1986, 11, 111-128.
- 이은주, 임상 간호원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적 연구, 중앙의학, 1986, 51(8), 137-146.
- 이은화, 간호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의 유형 및 소진정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 의학부, 1987, 40(1), 361-372.
- 이은희, 이경숙, 건강조절위에 따른 근육이완요법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원주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7, 13, 155-170.
- 이은희, 이경숙, 부인암 환자의 화학요법시 건강조절위에 따른 우울과 불안, 불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원주전문대학 논문집, 1987, 13, 171-190.
- 이인순, 간호학생의 간호역할 인식과 불안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8, 53(2), 95-108.
- 이인순, 입원환자의 성격과 입원 stress에 관한 연구, 중

- 양의학, 1988, 53(1), 5-16.
- 이인혜, 질환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와 대응양상에 따른 상태불안과의 상관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4.
- 이정숙, 입원 환자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원주전문대학 논문집, 1976, 2, 69-106.
- 이정숙, 조길자, 입원환자들의 불안감에 대한 조사 연구, 중앙의학, 1978, 34(1), 65-73.
- 이정연, 입원환자의 자아개념과 불안과의 관계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1.
- 이정화, 분만과정의 남편의 참여가 초산부의 상태-불안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4.
- 이지원, 정보제공이 입원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석사논문, 1982.
- 이진희, 소아과 외래 및 입원환아 보호자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개정간전 논문집, 1986, 6, 59-72.
- 이춘애, 교통사고자가 경험한 사고전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조사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 이춘원, 혈액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 이평숙,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4.
- 이평숙, 임현빈,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0, 10(1), 57-64.
- 이현성,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응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8.
- 이현주, 암환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 경북대 석사논문, 1989.
- 이혜경, 입원환자의 불안에 관한 연구, 대전간전 논문집, 1976, 2, 153-160.
- 이혜원, 이규정, 김해옥, 김혜숙, 이미경, 송말순, 수술환자에 있어 수술실내에서 수술대기 시간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990, 29(3), 36-48.
- 이화자, 근이완훈련이 시험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 석사논문, 1983.
- 이화자, 수술환자의 불안감소를 위한 근이완훈련의 효과, 부산의사회지, 1983, 19(7), 51-56.
- 인경선, 간호전문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시 느끼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조사, 동우전문대 논문집, 1988, 3, 317-332.
- 임복희, 일부 보건전문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990, 12, 139-162.
- 임순옥, 입원환자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예수간전 논문집, 1987, 4(1), 69-102.
- 임승주, 우울증 여성환자와 정상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신체증상에 대한 비교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8.
- 임연경, 소희영, 두부손상 환자가족의 불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충남의대지, 1989, 16(1), 260-271.
- 임혜경,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령전 아동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수간전 논문집, 1988, 5, 41-58.
- 임혜경, 어린이 입원으로 인한 부모의 긴장감(stress)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수간전 논문집, 1984, 2(1), 107-151.
- 장금성, 계획된 복부수술 환자의 수술전 상태불안에 대한 연구, 전남의대지, 1984, 21(4), 917-927.
- 장금성, 성인 수술환자의 수술전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5, 49(1), 21-28.
- 장금성, 수술환자의 수술전 불안요인 분석연구, 중앙의학, 1987, 52(12), 787-794.
- 장말희, 수술환자의 상황불안에 작용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2, 35(1), 237-243.
- 장선옥, 폐결핵 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상태불안간의 상관관계,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988, 10, 183-210.
- 장선옥, 여성 수술환자의 입원과 퇴원시의 상황불안, 경북대 석사논문, 1984.
- 장성옥, 치료적 접촉이 수술전 환자의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6.
- 장수경 A-B성격유형, 스트레스원에 대한 지식 및 스트레스의 강도, 인천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3, 3, 123-126.
- 장영숙,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불안정도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성신간전 논문집, 1986, 3, 31-42.
- 장옥자, 간호직과 스트레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혜전간전 논문집, 1987, 5, 407-436.
- 장인옥, 임상 간호사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순천간전 논문집, 1988, 12, 69-90.
- 장지숙, 스트레스가 일부 산업장, 생산직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 석사논문, 1984.
- 전경옥, 간호정보 제공이 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 군 감염환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7.
- 전경운, 정보제공시 수술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 전명희, 계획된 간호중재가 개심술환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 전명희, 청소년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한대 석사논문, 1988.
- 전명희, 중환자실에서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간호원, 의사, 개심술환자와의 비교연구, 강릉간전 논문집, 1985, 11, 135-148.
- 전성주, 하지골절 환자 입원시 교육이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논문, 1985.
- 전수진, 암환자의 영적 상호작용과 불안과의 관계연구, 순천간전 논문집, 1988, 12, 203-224.
- 전시자, 혈액 투석환자의 스트레스와 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6.
- 전화연,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4.
- 정길수, 오경옥, 장애자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지, 1990, 17(1), 283-300.
- 정동신, 입원환자들의 불안감에 대한 조사 연구, 청주간전 논문집, 1981, 7, 163-180.
- 정명실, 간호정보 제공이 환자의 불안해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국립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3, 4, 241-252.
- 정민, 청소년의 통제위 성격과 불안정도 및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제주간전 논문집, 1988, 12, 65-90.
- 정민, 정신질환 환자 가족원의 불안요인 및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연대석사논문, 1986.
- 정복례, 혈액투석 환자의 불안반응, 경북의대지, 1988, 29(1), 97-103.
- 정복임, 요통환자의 불안정도와 불안내용에 관한 조사, 연대 석사논문, 1987.
- 정선자, 불안 환자 간호에 관한 문헌연구, 원주전문대학 논문집, 1983, 8, 171-192.
- 정승교, 간호정보제공이 중환자 가족의 요구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정영순, 격리병동 환자의 불안요인 및 정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3.
- 정은순, 임신부의 불안도 평가, 부산의대 잡지 1975, 15(2), 395-400.
- 정은순, 초임부의 불안과 입덧과의 관계, 1988, 27(2), 229-236.
- 정인숙, 임상실습 간호학생의 상태불안감소를 위한 근이완훈련의 효과, 부산대 석사논문, 1984.
- 정주연, 중환자실 간호원의 스트레스 요인과 적응방법에 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5.
- 정주연, 간호원이 근무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적응방법에 대한 연구, 원주간전 논문집, 1986, 11, 305-330.
- 정현숙, 청소년들의 통제위 성격과 스트레스대처간의 관계연구, 동우전문대 논문집, 1990, 4, 443-458.
- 정현숙, 강규숙, 황애란,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질환, 대한간호, 1987, 26(5), 25-28.
- 정희성, 간호전문대 학생의 불안도 평가에 관한 연구, 진주간전논문집, 1987, 10, 99-117.
- 조희, 입원한 환아어머니의 불안해소를 위한 실험연구, 적십자간호, 1981, 3, 57-68.
- 조희,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2, 4, 137-156.
- 조희,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3, 5, 93-106.
- 조희, 수술전에 행한 이완요법이 수술전 불안과 수술후 진통제 사용횟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 조경순, 간호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 조경순, 박미영, 종합병원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대전간전 논문집, 1987, 14, 43-58.
- 조경자,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 조수현, 임상실습장에서 경험하는 간호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순천간전논문집, 1988, 12, 301-326.
- 조성숙, 혈액투석환자의 불안요인 및 그 정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6.
- 조혜진, 수술전 환자에 있어 수술실 간호원 방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 조화자, 정보제공 방법이 자궁적출술 환자의 지식과 불안정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석사논문, 1988.
- 주경옥, 도시근로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건강상태와의 관계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1987.
- 주숙남, 농촌지역 부인들의 불안도에 관한 조사 연구, 수원간전 논문집, 1981, 7, 177-190.
- 지성애, 간호상황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월간간호, 1985, 9(6), 59-69.
- 지성애, 간호상황에 대한 지각이 stress로서 대처행위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의대지, 1986, 11(4), 395-409.
- 지영숙,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통제위 성격과의 관계연구, 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 차영남, 정신질환자의 자아개념과 불안과의 관계연구, 예수간전 논문집, 1984, 2(1), 153-177.
- 차정희, 위내시경검사전 간호정보가 불안감소와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대학 의학부 논문집, 1988, 41(3), 1035-1044.
- 최경옥, 임상 간호원의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1987, 30(9), 109-118.
- 최경옥,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가 지각한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7, 52(9), 605-614.
- 최공옥, Manifest Anxiety Scale에 의한 갱년기 부인의 불안도 평가, 경기간전 논문집, 1982, 13, 247-250.
- 최공옥, 응급실 간호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간전 논문집, 1986, 17, 103-128.
- 최남희, 이남희, 김희숙,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이 주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990, 20(2), 214-226.
- 최양자, 주부들의 불안도 조사연구,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982, 4, 157-172.
- 최연자, 생활인의 스트레스 위험 노출정도에 관한 연구, 원광보건 전문대 논문집, 1983, 6.
- 최영숙, 불안과 학업성적에 관한 예비조사연구, 대전간전 논문집, 1979, 5, 155-161.
- 최영희, 입원환자와 일반인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간호학회지, 1982, 12(2), 91-104.
- 최옥신, 입원이 불안감으로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75.
- 최정명, 혈액투석 환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혜전간전 논문집, 1990, 8, 739-750.
- 최정숙, 입원환자의 수술에 따른 긴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0.
- 최현숙, 입원한 성인 환자들의 불안 정도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4.
- 최현자, 벤슨의 건강이완법과 GSR2 생체회환이완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논문, 1986.
- 최혜은, 수술전 불안과 수술후 통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논문, 1983.
- 추미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연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6.
- 태영숙, 외과병동에 입원한 성인환자의 입원불안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연구, 복음간전 논문집, 1983, 1, 33-44.
- 하재숙, 하지수술환자의 상황불안과 수술후 동통증대와의 관계, 부산대 석사논문, 1986.
- 한금선, 소화성궤양환자와 건강인의 생활 stress양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경북실업전문대학 교지, 1990, 9.
- 한금선, 소화성궤양 환자의 생활 스트레스량과 대처기전에 대한 관계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8.
- 한상임, 송경애, 수술전 교육이 자궁적출술후 불안감소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 최신의학, 1987, 30(2), 139-146.
- 한상임, 송경애, 장기 혈액투석 환자의 기질불안, 최신의학 1986, 29(1), 93-101.
- 한상임, 송경애, 장기혈액투석 환자의 기질불안 정도와 합병증 발생과의 관계 최신의학, 1986, 29(2), 167-174.
- 한운복, 노유자, 김남초, 김희승, 간호사의 불안 및 불안 관련 요인과 소변, 타액 PH와의 상관관계연구, 가톨릭 간호, 1989, 10, 19-30.
- 한정석, 놀이교육이 심도자술을 받는 환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간호학논집, 1984, 7, 14-28.
- 한정석, 오가실, 민영숙, 김경희, 학생이 아동간호학 실습시 느끼는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간호학논집, 1987, 10, 122-132.
- 한혜숙, 이미현, 청소년의 불안요인과 환경특성과의 상관연구, 청주간전 논문집, 1989, 15, 109-130.
- 한혜실, 분만시 호흡조절과 산부의 불안 및 진통에 관한

-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8.
- 한혜실, 임신부의 성격과 불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984, 23(1), 57-74.
- 현경선,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방법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간전 논문집, 1983, 8(1), 35-42.
- 현경선,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생의 변화사건의 재적응 정도에 대한 질병집단과 건강집단의 비교 연구, 경희간전 논문집, 1982, 7(1), 35-41.
- 현행희, 보호자의 분만대기실 임석여부에 따른 임신부 불안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논문, 1978.
- 홍순탁, 간호원의 온화성이 환자의 불안감, 조력감,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석사논문, 1989.
- 홍여신, 이소우, 정신적 이완간호가 수술전 환자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1982, 25(2), 83-92.
- 홍영상, 일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시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강릉간전 논문집, 1983, 9, 201-218.
- 홍영상, 일 간호전문대생의 스트레스의 대응기전에 관한 조사연구, 강릉간전 논문집, 1986, 12, 93-108.
- 홍영혜, 환자의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일 기초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86.
- 홍영혜, 환자의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순위에 관한 반복 연구, 춘해간전 논문집, 1990, 5, 57-75.
- 홍은영, 간호중재를 위한 입원환자의 성격과 불안과의 관계, 연대 석사논문, 1982.
- 홍은영, 입원환자의 불안과 건강조절위에 대한 이완요법의 효과에 관한 문헌고찰, 원주전문대학 논문집, 1986, 1, 291-304.
- 홍춘실, 조경순, 간호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tress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충남대 논문집, 1986, 13(2), 410-426.
- 황승숙, 임상간호사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업무시행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 및 정도와의 관계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0.
- 황애란, 스트레스시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 대한간호 1984, 23(4), 38-47.
- 황한호, 수술환자의 불안도에 관한 연구, 부산의대 잡지 1972, 12(2), 1-148.
- 민 순, 암환자의 영적 상호작용과 불안과의 관계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7.
- 전명희, 계획된 간호중재가 개심술환자의 불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5, 49(4), 227-232.